

라틴아메리카 電氣通信의 投資計劃 및 民營化計劃과 外國企業의 進出 (1)

動向分析室 趙 琳 坤

목 차

I. 머리말	4. 에쿠아도르
II. 라틴아메리카 電氣通信의 投資計劃과 民營化 計劃	5. 칠레
1. 세계의 전기통신과 라틴아메리카의 전기통신	6. 브라질
2. 콜롬비아	7. 아르헨티나
3.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8. 기 타

I. 머리말

최근 동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변화는 세계권력의 지정학적 균형을 무너트리고 있으며, 동유럽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면서 자본주의시장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던 다국적 기업간의 경쟁상태 역시 큰 혼란을 받고 있다. 동시에 동유럽의 정치적 변화는 전기통신부문에서도 규제제도의 변화, 기업전략의 변화, 기업간 제휴관계의 변화 등을 야기시켜 전기통신산업의 경쟁적 균형상태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¹⁾ 동유럽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타 세계 여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변화는(예를 들면 선거, 지배자의 사망, 정치적 혁명 등) 전기통신부문에 대한 국가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²⁾ 그러나 정부의 예산할당 등 경제정책보다 전기통신부문에 영향

1) 동유럽의 변화는 기기제조업자나 서비스제공업자에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주었고, 동유럽에 빨리 진출할수록 이들의 시장확보는 쉬워질 수 있으나 동유럽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투자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PYRAMID RESEARCH, INC.,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Report, Vol.5, No.1, Jan.1990, p.1.

2) 그 예로 프랑스의 전기통신규제제도의 변화가 완만해진 것이나 간디정부가 전기통신부문에 많은 투자액을 할당했으나 새로이 등장한 행정부가 이 투자액을 삭감한 것을 들 수 있다. Ibid., pp.2~3.

을 많이 미치는 것은 전기통신부문에 대한 자유화정책이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 분명히 드러난다.

브라질의 Collor de Mello 정권은 브라질의 제한적인 정보통신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 동법이 개정되면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기기의 수입제한이 폐지되어 브라질에는 20억 달러 규모의 전기통신시장이 새로이 창출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Menem 정권은 인플레이션 방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전기통신부문에 대한 투자액을 감소시켰지만 Menem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화정책 역시 전기통신기기의 수입에 대한 관세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와 같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현재 민영화, 규제완화 등으로 전기통신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전기통신시장이 창출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전기통신발전과 근대화를 위해서는 많은 해외자본이 필요하게 되는데 세계 굴지의 전기통신 관련 기업은 라틴아메리카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최근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활동이 미약한 기업군으로 여기에는 Alcatel 과 AT&T 가 포함된다. 둘째는 이미 기존에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군으로 여기에는 Ericsson 과 NEC 등이 포함되며 이들 역시 라틴아메리카 시장환경의 변화와 첫째 유형의 기업이 진출함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시장에 대한 기존의 기업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경우 경제발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는데 특히 외환의 부족은 개도국의 발전에 항상 걸림돌이 되어 왔다. 개도국 정부는 외환의 부족을 외국기업의 자본참여에 의해 해결하고자 노력하는데 외국기업 역시 기업의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 P. Evans 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본축적의 세계적 논리이지만 - 외국시장에 진출을 꾀하고 있다. 초기의 라틴아메리카 경제발전에서 외국자본의 국내진출로 종속의 심화를 가져왔던 경험을 생각할 때,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여러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기통신부문의 민영화계획과 투자계획을 외국기업의 진출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전기통신의 민영화계획과 투자계획을 전기통신 관련 외국기업의 진출을 중심으로 첫째, 라틴아메리카(일부 카리브연안 포함)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기통신부문에 대한 투자계획과 민영화 정책 등을 살펴보고, 둘째,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선진 기업들의 개략적인 활동내용을 살펴본 후, 셋째, 특히 최근에 활발한 진출을 보이고 있는 AT&T, Alcatel 의 주요 활동내용을 작년 이후의

ETRI의 「주간기술동향」과 올해 이후의 PYRAMID RESEARCH, INC.의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Report를 참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이들 기업 활동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선진기업활동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뿐더러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지역에서의 활동을 종합해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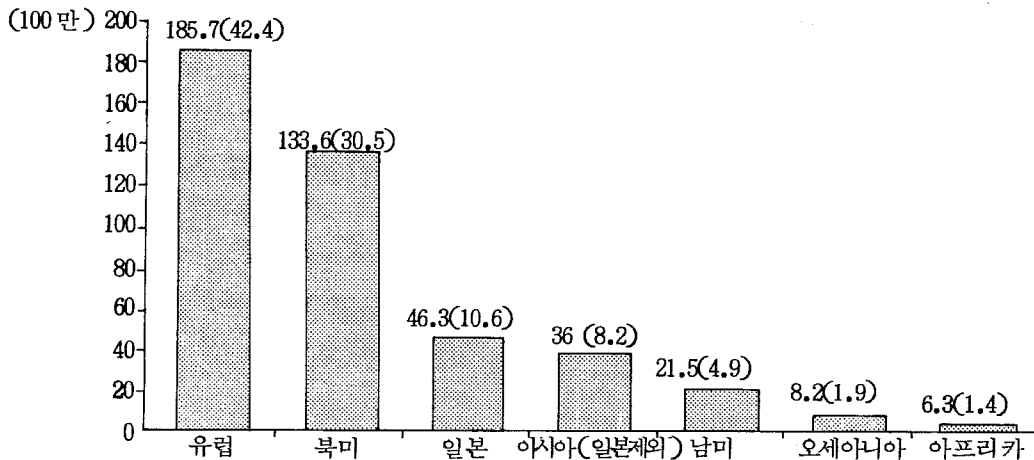
II. 라틴아메리카 전기통신의 투자계획과 민영화계획

라틴아메리카 전기통신의 투자계획과 민영화 계획을 알아보기 전에 세계의 지역별 전기통신현황을 회선(main line)수, 100인당 회선수, 회선수의 성장률, 디지털화율 등으로 간단히 살펴본다. 라틴아메리카 전기통신의 현재 위치를 알아보자.

1. 세계의 전기통신과 라틴아메리카의 전기통신

1989년 현재 세계의 총회선수(main line)는 약 4억 8천만 회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³⁾ ITU 통계집에 따르면 세계 총회선 중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이 42.4%, 북미가 30.5%, 일본이

<表 1> 1988년 세계의 회선(main line)수 분표



* '88년 조사 대상국은 180개국으로서 이는 전세계 인구의 98% 이상이며 전세계 주회선수의 98% 이상을 차지한다.

자료: ETRI, 「주간기술동향」, 400호, 1989, p.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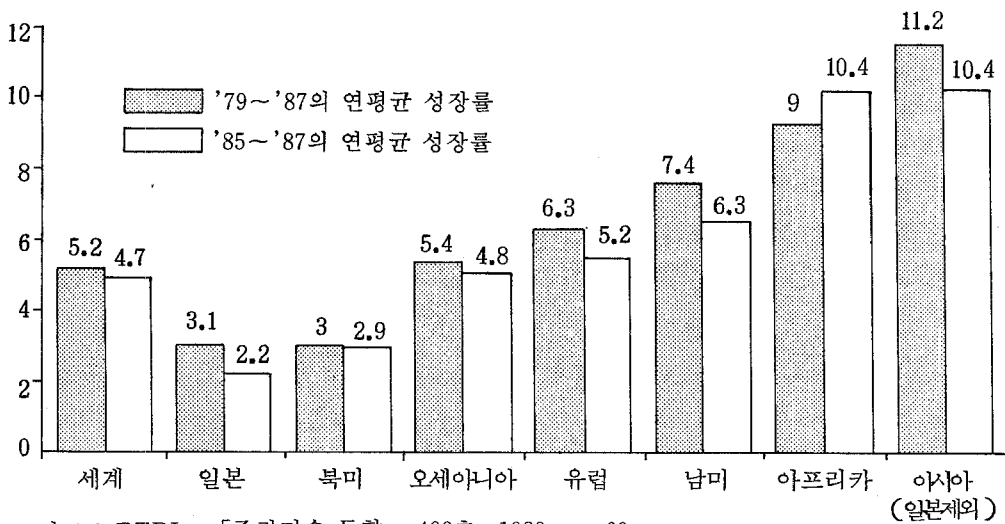
3) ETRI, 「주간기술동향」, 458호, 1990, p. 54.

〈表 2〉 세계의 100당 회선(main line)수

구	분	1987	1988	1989	1990
서	유럽	39.0	40.5	42.1	43.6
북	미	52.1	53.5	54.8	56.1
남 미	아르헨티나	9.3	9.9	9.9	10.2
	브라질	5.6	5.9	6.1	6.3
	콜롬비아	6.7	7.1	7.6	8.1
	멕시코	5.0	5.1	5.3	5.4
	베네수엘라	7.7	7.9	8.2	8.5
	소계	6.1	6.3	6.5	6.8
아프리카 중동		6.1	7.4	9.3	12.0
아시아·태평양		3.8	3.9	4.1	4.3
동유럽		9.8	10.5	11.1	12.1
세계계		11.3	11.7	12.1	12.6

자료 : ETRI, 「주간기술동향」, 458호, 1990, p.55.

〈表 3〉 세계의 회선(main line)수 성장률



자료 : ETRI, 「주간기술 동향」, 400호, 1989, p.60.

〈表 4〉 세계의 디지털화율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서 북	유 럽	27.9 %	32.6 %	37.3 %	41.8 %	46.3 %	50.9 %
	북 미	43.9 %	49.4 %	54.1 %	59.0 %	63.3 %	67.4 %
남 미	아르헨티나	12.3 %	15.1 %	17.4 %	19.4 %	21.2 %	22.9 %
	브 라 질	11.7 %	15.3 %	18.7 %	21.9 %	24.7 %	27.1 %
	콜 롬 비 아	32.4 %	34.1 %	35.1 %	35.7 %	36.0 %	36.1 %
	멕 시 코	18.5 %	25.9 %	32.5 %	36.8 %	40.0 %	42.3 %
	베네수엘라	19.0 %	21.6 %	23.7 %	25.6 %	27.2 %	28.5 %
소 계		16.2 %	20.2 %	23.8 %	26.8 %	29.3 %	31.3 %
아프리카 / 중동		25.4 %	24.3 %	22.0 %	19.4 %	16.9 %	15.0 %
아시아 · 태평양		23.5 %	29.0 %	33.5 %	37.6 %	41.1 %	43.9 %
동 유 럽		2.6 %	4.3 %	6.3 %	8.3 %	10.0 %	11.2 %
평 균		29.0 %	33.4 %	37.0 %	40.3 %	40.9 %	45.0 %

자료 : ETRI, 「주간기술동향」, 458호, 1990, pp.57~58.

10.6%,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8.2%, 남미가 4.9%, 오세아니아가 1.9%, 아프리카가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2〉는 총회선수를 인구로 나누어 100인당 회선수를 구한 것인데, 1989년 현재 북미와 서유럽을 제외한 남미, 아프리카·중동,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등은 100인당 회선수가 10회선 미만임을 알 수 있다. 또 1987년과 1990년 사이를 볼 때, 아프리카·중동을 제외하면 100인당 회선수 증가율도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은 세계의 회선수 증가율을 1979년과 1987년 사이, 1985년과 1987년 사이로 나누어 살펴본 것인데, 특이한 것은 아프리카 지역만이 1985년과 1987년의 증가율이 1979년과 1987년 사이보다 높다는 것인데 〈表 2〉에서 아서 아프리카·중동의 100인당 회선수 증가율이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表 4〉는 세계의 디지털화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미지역과 아시아·태평양의 디지털화율이 1994년까지 급속히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총 회선수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회선수의 증가율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화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후술하겠지만 1990년대 이후의 많은 투자계획과 민영화 계획으로 전기통신의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면 이제 라틴아메리카 전기통신을 투자계획과 민영화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2.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통계는 <表 5>와 같은데, 전화밀도나 서비스 제공 범위에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통신의 발전이 부진한 실정이고 특히 전기통신 서비스의 77%가 4개 주요도시에 편중되어 제공되고 있다.

<表 5> 콜롬비아의 전기통신서비스 관련통계

구 분	1989	1993	2000
서비스 대상 인구	30,237,150	36,313,041	42,578,662
회 선 수	2,402,038	3,545,688	4,850,000
가 입 자 수	2,221,885	3,279,761	4,486,250
전 화 밀 도	8	10	11
서비스 제공 범위	45 %	80 %	98 %
ISDN Gateways	0	7,300	17,300
이 동 전 화 용 량	4,000	10,000	150,000

자료 : PYRAMID RESEARCH, INC.,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Report, Vol.5, No.1, Jan. 1990, p.13.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전기통신공사인 TELECOM 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10억달러를 투자하여 낙후지역에 전기통신을 보급하고 COLDAPAQ 데이터네트워크를 건설하고, 국내 마이크로웨이브네트워크 건설과 간선·국제 교환국 건설, 30만회선 증설, Trans-Caribbean 해저케이블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기간 중 30여개의 콜롬비아 독립지역 전화회사 역시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화회사의 확충과 현대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독립지역전화회사 중 수도 보고타에 위치한 ETB 는 46만 디지털 회선을 증설할 계획이며, 보고타 북서부지역의 메데인(Medellin) 지역의 EPM 은 6만 5천회선, 콜롬비아 북부의 바랑키야(Barranquilla) 지역의 EMC 는 5만 회선을 증설할 계획이다. 독립지역전화회사 중 ETB 와 EPM 은 이미 ISDN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베이직인터페이스와 일차군인터페이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⁴⁾

4) 베이직 인터페이스(basic interface)는 2B + D (B : 64 bps 의 정보채널, D : 16 Kbps 의 신호채널)의 인터페이스구조와 수동 버스형 배선을 기본으로 하는 인터페이스이며, 일차군 인터페이스(primary interface)는 23B + D 또는 30B + D (이때의 D 는 64 Kbps 의 신호채널)의 인터페이스 구조를 갖는다. 23B + D 는 미국, 캐나다, 일본의 전송방식 구조이며 30B + D 는 유럽방식이다. KISDI, 「ISDN - I 시리즈 국제표준과 그 기술 -」, 통신정책자료 8803, 1988, pp.15~16.

ETB는 ISDN 서비스제공을 위해 Siemens와 합작하고 있는데⁵⁾ 1989년 중반 현재 Siemens는 ETB의 디지털 294,368회선 중 62,368회선을 공급하고 있다. ETM은 ISDN 서비스제공을 위해 일본의 Fujitsu와 합작하고 있는데 1989년 현재 FETEX 교환기는 ETM의 회선 중 42.1%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이 비율이 56.7%로 될 전망이다.⁶⁾

콜롬비아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를 34개의 지역 전화회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기 시장도 지역적으로 분할되어 있고 해외 공급업자에게는 상당한 시장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에 진출한 외국기업으로는 Ericsson, GPT, NEC, Fujitsu, Siemens 등인데 현재까지는 Ericsson의 진출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3.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푸에르토리코의 전기통신네트워크에 관한 통계를 보면 다음의 <表 6>과 같이 카리브 연안국가나(버뮤다 제외) 기타 라틴아메리카 지역보다 발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도서비스도 상당히 발달해 있는데 푸에르토리코섬의 회선 중 80

<表 6> 푸에르토리코의 전기통신 관련 통계

인 구	3,254,000
회선수	934,805
PBXs	19,834
주요 시스템수	5,000
동전식 공중전화	14,293
카드식 공중전화	150
사설전용회선	3,000
1989 ~ 94년 기간동안 공장투자액 (계획)	U\$\$ 896mn

자료 : PYRAMID RESEARCH, INC.,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Reoprt, Vol. 5, No. 3, March 1990, p. 5.

5) 그러나 ETB의 디지털 회선의 77%는 Ericsson의 AXE 교환기가 공급하고 있다.

6) PYRAMID RESEARCH, INC.,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Reoprt, Vol. 5, No. 1, Jan. 1990, p. 13.

7) 주요시장에서의 외국기업의 진출에 대해서는 ETRI, 「주간기술동향」, 414호, 1989, pp. 21~23.을 참고.

초점

%를 공급하고 있는 PRTC는 1986년에 주요도시에 셀룰러전화서비스를 공급하여 1989년 3월에 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1990년 말에는 가입자수가 3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PRTC는 1981년 이래 국내와 국제를 연결하는 패킷교환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수도권지역내와 장거리구간에서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시내와 장거리통화를 위해 대용량 디지털무선국도 설치하고 있다. PRTC와 Contel ASC는 푸에르토리코와 미국간에 위성을 이용하여 고속데이터, 전화, Videotex, 화상회의, 전자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1년까지는 ISDN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⁸⁾

푸에르토리코는 최근 전기통신부문의 민영화를 결정하고 푸에르토리코 개발은행을 매각추진기관으로 선정했다. 현재까지 GTE, Bell South, Telefonica 등 20여개사가 매수할 의향을 밝히고 있다. 민영화 대상인 기업은, 대부분의 국내서비스와 AT&T와 경쟁적으로 낙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PRTC와 낙도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ACPR이다.⁹⁾ 양사의 매각가격은 20억 달러에서 30억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영화에 대한 국내의 의견은 찬반으로 갈리고 있는데 업계는 푸에르토리코가 카리브해와 남미를 연결하는 중심지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불가결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화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야당이 실업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이 때문에 대규모의 파업이 일어난 적도 있다.¹⁰⁾

민영화는 최근 카리브 연안국가와 라티아메리카의 시대적 조류인데¹¹⁾ 푸에르토리코의 경우는 민영화가 진행되는 방식과 매각의 동기가 기타지역과는 다르다. 이러한 독특한 상황은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자치령이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체를 정부가 소유하고 규제하고 있지만 그 활동은 FCC의 규제를

8) 이상과 같이 푸에르토리코의 전기통신 수준이 카리브연안국가나 라틴아메리카보다 발전되어 있지만, 미국의 전기통신수준에 비교할 때 아직도 고도설비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PYRAMID RESEARCH, INC.,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Reoprt, Vol. 5, No. 3, March 1990, pp. 4~6.

9) ACPR은 PRCA로도 불리워지는데, ACPR은 전기통신 규제 기관이기도 하다. 국내전화서비스는 대부분 PRTC가 공급하고 ACPR은 약 10%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KDD, 「국제전기통신운영체필휴」, (동경: KDD 국제부, 1987), p. 512.

10) ETRI, 「주간기술동향」, 456호, 1990, pp. 13~14.

11) 이미 많은 도서국가가 C&W에 주식을 매각하였고 도미니카의 CODETEL은 미국의 GTE에 매각되었으며, 벨리즈는 BT에 주식을 매각하였고 멕시코도 TELMEX의 주식 중 51%를 민간에 매각하였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PYRAMID RESEARCH, INC.,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Reoprt, Vol. 5, No. 3, March 1990, p. 4.

받아야 한다. 또 정부가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일부 수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미국 역사상 처음있는 국가소유의 전기통신사업자의 민영화라는 점에서 푸에르토리코의 민영화계획은 다소 늦게 진전되고 있다. 또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민영화가 전화회사의 경영난, 재정적 문제, 네트워크의 악화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반하여 푸에르토리코의 민영화는 그 성격이 다르다. PRTC 에 따르면 1988년 수입은 5억 4천만달러이고 이 중 순소득이 약 1억 5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민영화로 생기는 2억달러는 전기통신부문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업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교육부문에 투자될 예정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푸에르토리코는 미국과 밀접한 관련으로 전기통신기반구조의 발전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GTE 는 도미니카에서의 경험이 있는 미국의 기업으로 가장 유망한 인수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현재 스페인의 Telefonica 와 미국의 RHCs 도 GTE 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푸에르토리코에는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NEC , Northern Telecom 등이 전체 교환기의 약 90 % 를 공급하고 있다.

<表 7> 푸에르토리코의 교환기 공급현황

교 환 기	공 급 회 선	비 율
DMS 10/100	598,000	60 %
NEAX 61	258,000	26 %
NT SPC	141,000	14 %
합 계	997,000	100 %

자료 : PYRAMID RESEARCH, INC.,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Reoprt, Vol. 5, No. 3, March 1990, p. 5.

4. 에쿠아도르

에쿠아도르의 전기통신공사인 IETEL 은 외국의 원조에 의해 3억달러 정도의 발전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1995년에 끝나는 이 계획에서는 시내, 시외, 국제 전화서비스의 확대와 IETEL 의 제도적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 IETEL 은 정부소유로서 시내전화, 시외전화, 텔렉스 데이터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에쿠아도르 가입자의 95 % 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의 서비스는 ETAPA 가 아수아이(Azuay) 자치구의 쿠엔카에서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한다. 1987년말 총 회선수

초점

는 34만 3천회선으로 이중 인구의 28%가 살고 있는 키토와 구아야킬 지역에 총 회선의 77%가 집중하고 있다. 100인당 회선수도 라틴아메리카의 7회선 보다 낮은 3.5회선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에쿠아도르의 전기통신발전이 부진한 이유는 IETEL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IETEL의 재정적인 제약에서 비롯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자의 도입으로 전기통신의 발전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외자의 도입은 다음의 <表 8>과 같고 각 나라는 별도의 개발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表 8> 에쿠아도르 전기통신부문의 외자참여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세계은행	프랑스	일 본	CDC*	스페인, 멕시코 이탈리아, 브라질	기 타	합 계
투자액	45	47	45	27	28	49	241

* CDC : Commonwealth Development Corporation (영연방 발전회사)

자료 : PYRAMID RESEARCH, INC.,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Reoprt,
Vol.5, No.1, June. 1990, p.14.

교환기분야에서는 약 19만 디지털회선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중소 도시에 5개의 중계교환국이 건설되고 있고, 수도인 키토에는 1500회선의 디지털 국제 교환국이 건설되고 있다. 프랑스의 Alcatel CIT, 일본의 NEC, 스웨덴의 Ericsson 이 스페인, 멕시코, 브라질 등에 소재하는 지사를 통해 교환기를 공급하고 있다. 새로운 교환기가 수입됨에 따라 이에 따른 케이블과 시내회선에 약 6천 3백만 달러가 투자되고 있는데 이때의 자금은 세계은행과 CDC에 의해 출자되고 있다. 전기통신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약 2천 7백만달러가 투자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전화회선의 98%가 도시지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시골지역은 2%가 보급되어 기껏해야 공중전화가 있을 정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Siemens가 76개의 교환기를 설치하여 2만회선을 공급한 결과 시골지역의 교환기는 130개, 총 회선은 3만 5천 회선에 달하고 있다. 에쿠아도르는 1955년까지 238개의 교환기를 설치하여 시골지역의 각 가정마다 전화를 설치할 수 있게할 예정이다. 장거리 분야에서는 Siemens가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과 광케이블시스템 그리고 위성지구국을 건설하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와 팩킷교환데이터서비스의 경우는 참여기업이 1991년 중반에 결정될 예정이다.¹²⁾

12) PYRAMID RESEARCH, INC.,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Reoprt, Vol. 5, No.3, June 1990, p.14~16.

5. 칠레

칠레에서는 CTC 가 현재 ENTel (Empresa Nacional de Telecommunications SA)과 경쟁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1988년까지 CTC 는 시내통화량의 96 % 를 차지하였고 ENTel 은 국제전화와 대부분의 장거리전화서비스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다. CTC 는 현재 자신의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고 ENTel 로부터 설비를 임차하고 있다.¹³⁾

〈表 9〉 CTC 의 경영성과

(단위 : 백만달러)

년	도	1987	1988	1989
이	윤	31.0	63.5	95.6
매	출	166.0	-	269.0

자료 : Paramus , Telecom Highlights , March 21, 1990, p.1.

칠레는 1987년 12월 CTC 를 민영화시킨 바 있는데, CTC 는 민영화된 이후 놀라운 경영성과를 보였다. CTC 의 민영화는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기통신부문 민영화의 시초로 볼 수 있다. 민영화 이후 CTC 는 2년동안 이윤에서 다음의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배의 성장을 보였고 CTC 의 주가가격도 2년동안 85 % 의 증가를 보였으며 매출액도 67 % 정도가 증가하였다. 또 CTC 는 1988년에 약 6만회선 판매에서 1989년에 약 14만의 신규회선을 판매하였는데 앞으로 CTC 는 13억 달러를 투자하여 1992년까지 120만 회선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년 동안 CTC 의 경영권을 맡아온 호주의 BCIL (Bond Corporation International Ltd.)는 CTC 주식의 50.2 % 를 매각하기로 발표했는데, 그 구매자는 스페인의 Telefonica 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정은 칠레의 전기통신정책에 큰 압력을 던져주고 있는데 1989년 7월 Telefonica 는 스페인의 Banco Stantander 와 함께 칠레의 장거리 사업자인 ENTEL 의 주식을 20 % 매입한 바 있어서 칠레 전기통신의 경쟁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3) 옛날에는 ENTel 이 칠레의 기간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ENTel 로부터 회선을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CTC 는 주요 도시에 광케이블을 부설하여 ENTel 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기타의 사업자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ETRI, 「주간기술동향」, 402호, 1989, pp.20~22.

1987년 12월 CTC의 인수 이후 셀룰러 전화, FAX, 전용회선, 장거리 광케이블, 위성지구국 설비 등 다양한 사업진출계획을 세웠던 BCIL이 CTC를 매각하는 이유는 BCIL의 최근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67억 달러의 채무 때문이다. BCIL은 1987년 12월 2억 6천 7백만 달러로 CTC를 인수했는데 1990년 4월 28일 Telefonica가 CTC주식의 43.7%를 매입했다.¹⁴⁾ Telefonica는 BCIL의 현대화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CTC와 ENTEL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급박한 경쟁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획이 느슨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우려로 칠레 정부는 Telefonica의 ENTEL 주식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BOCs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Telefonica는 현재 국제적으로 기기 제조업과 서비스제공업에 합작투자를 행하고 있는데 Telefonica의 국제적 전략의 주요 대상지역은 라틴아메리카에 집중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기의 공급과 설치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지만 최근 아르헨티나의 ENTEL 주식 구매에 성공한 바 있다. 한편, CTC의 매입으로 Telefonica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칠레의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소유하게 되어 전기통신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한층 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전기통신 민영화시 많은 Telefonica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6. 브라질

브라질은 1965년에 장거리 및 국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정부가 전액을 출자하여 EMBRATEL을 설립한데 이어, 1972년에는 정부가 67%의 주식을 소유한 TELEBRAS를 설립하여 기존의 EMBRATEL과 TELESPO를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각주에는 105개의 독립전화회사를 만들어 TELEBRAS에 편입시켰다. 그동안 브라질의 전기통신에 대해서는 만성적인 전화적체와 기본서비스의 불충분 등의 비판이 잇달았다. 그러나 브라질의 기본서비스부문은 1980년대 후반기 동안 많은 발전을 보였는데, <表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화설치수는 31% 증가하였고 공중전화수는 141%나 증가하였다. 전기통신서비스가 공급되는 도시지역의 수는 78%가 증가하였고 전기통신서비스가 공급되는 시골이나 낙후지역의 수도 78%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공급의 증가는 TELEBRAS와 브라질의 공기업이 1984년부터 시골지역과 저소득도

14) 4월 19일 칠레의 반독점위원회는 Telefonica가 ENTEL과 CTC주식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Telefonica는 양사의 주식소유가 경쟁에 장애가 되지 않느냐며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表 10〉 브라질 기본서비스 부문의 성장

구 분	전화(1000)	도시지역수	공중전화수	시골지역수
1984 년	10,570	7,607	94,453	53,032
1989 년	13,821	13,560	227,286	90,081

자료 : PYRAMID RESEARCH, INC.,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Reoprt,
Vol. 5, No. 3, March 1990, p. 14.

시 지역에 전기통신의 확장을 목표로 대대적인 사업을 벌인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 상무성에 의하면 브라질은 최근 전기통신, 교통, 에너지, 광산 등을 관장하는 초행 정부처를 설립할 계획에 있다.

브라질 정부는 현재 일부 전기통신사업의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본서비스는 EMBRATEL 가 제공하고 그외 데이터통신, 셀룰러전화, 비디오텍스 등은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EMBRATEL 이 독점적으로 제공하여온 데이터통신서비스를 각 주내의 데이터통신서비스에 한해서 각 주의 전화회사가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자동차전화사업은 민간의 참여가 인정되는 듯 했으나 브라질의 신헌법 제정의회에서 통신의 민영화거부로 최종적으로 TELEBRAS 의 독점적 제공이 되고 있다. 또 이미 무선호출의 경우는 민간부문이 참여하고 있다.

7.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당초보다 5개월 늦은 1990년 10월에 ENTEL 의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럽과 북미의 사업자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 아르헨티나는 외국 사업자에게 ENTEL 의 주식 매입과 네트워크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의 계획에 따르면 ENTEL 을 북부와 남부로 분할, 민영화하여 10년동안 독점을 유지하고 그후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또 ENTEL 의 주식중 60% 를 구입자가 약 2억 4천만 달러의 현금으로 구입하고 액면가치 20내지 30억달러의 아르헨티나 외채를 3년동안 3억 8천만 달러의 증권으로 만들고, 정부가 연간 순고정자산의 16% 라는 이익율을 보장해서 2년동안 총 5억달러의 이윤을 확보해줌으로써 투자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ENTEL 의 민영화는 그동안 심한 정치적 반대에 부딪쳐왔는데 당초의 민영화 계획

이 투자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나 ENTEL의 평가가 낮게 되어 있고 아르헨티나 네트워크 향상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발한 것이다. 이러한 반대로 최근 당초 계획에 두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째는 외국투자자에 대한 이윤보장액을 2억달러로 낮추고, 둘째는 증권화되는 외채의 규모를 35억달러로 상향조정했다는 점이다.

최근 ENTEL은 민영화되었는데 남부 ENTEL은 Telefonica가 주도하는 콘소시움이 북부 ENTEL은 Bell Atlantic International 주도의 콘소시움이 매입하였다. ENTEL의 입찰에서는 현금가격제시와 아르헨티나 부채가 증권화되는 비율에 의해 결정되었다. Telefonica 주도의 콘소시움은 남부와 북부에서 가장 유리한 매입조건을 제시하였으나 남부와 북부 ENTEL 모두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Telefonica가 남부 ENTEL을 선택하였다. Telefonica 주도의 콘소시움이 제시한 조건은 1억천 4백만달러의 현금과 이자 5억 4천만달러를 포함한 27억 2천만 달러의 채무를 증권화한다는 조건이었고 Bell Atlantic 주도의 콘소시움이 제시한 조건은 1억달러의 현금과 이자 3억 7천 2백만달러를 포함한 22억 3천 2백만 달러의 채무를 증권화한다는 것이었다.¹⁵⁾ 두 콘소시움에 매각되고 남은 나머지 40%의 자본은 ENTEL의 종업원에 10%, 협동조합방식의 전화회사에 5%, 국내주식시장에 25%가 매각될 예정이다.

8. 기타

엘살바도르(E1 Salvador)는 최근 제4차 5개년 전기통신발전 계획을 착수했는데 이 계획에서는 347,256 회선을 공급할 계획인데 현재 엘살바도르의 총 회선은 229,256 회선이다. 셀룰러 전화서비스도 3개의 교환기를 통해 8,000회선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계획이 끝나는 1994년에는 100인당 전화보급은 7대로 늘어나게 되고 국내 전송 및 교환의 85%가 디지털화되고 국제부문은 100% 디지털화 된다.

베네수엘라(Venezuela) 정부도 전기통신부문의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기통신부문의 점진적인 재구축을 위하여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민영화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미국정부와 세계은행의 기금으로 이미 행해졌고 FCC가 전기통신규제와 주파수배분을 담당하는 기구신설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전화회사인 CANTV의 정부소유기간이 1990년 7월에 만료됨에 따라 CANTV의 기본서비스 독점은 인정하고 셀룰러전화, 지방전기통신, 데이터통신 등의 분야는 민간부문에 의한 경쟁이 될 전망이다.

15) NTT, 「世界のテレコムニュース」, No. 202, 1990. 8. 1, pp.23~25.